

현대모비스, 어린이 빗길 안전 지킨다

초등학교·아동센터에 투명우산 배포

현대모비스가 올해도 사연 신청을 통해 선정한 초등학교 및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투명 우산을 배포한다.

현대모비스는 고양시 아람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투명우산 나눔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570명 초등학생에게 비 오는 날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 우산을 배포하고, 모형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활용한 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투명 우산 나눔 캠페인’은 현대모비스가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해온 사회공헌활동이다. 사연 신청 등 공모 방식을 통해 매년 10만 개 이상의 투명우산을 단체와 개인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방식이다.

현대모비스가 만든 투명우산은 경량 알루미늄과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튼튼하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잘



경기도 고양시 아람초등학교 학생들이 투명 우산을 들고 모형 횡단보도를 건너며 교통 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

찢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으며, 특히 우산이 불빛을 반사해 운전자가 우산을 쓴 어린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손잡이에 달린 비상용 호

루라기를 이용해 위급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시각장애가정에 AI스피커 기증

LG유플러스는 네이버와 31일 용산사옥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U+우리집AI’ 스피커를 기증하는 행사를 갖고, 시각장애가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키로 했다. 따뜻한 AI기술로 장애가정, 사회 소외계층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5세~10세 자녀를 둔 시각장애가정 500가구를 대상으로 U+우리집AI 스피커 보급사업을 진행한 결과, 시각장애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고 추가 보급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와 네이버는 AI스피커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U+우리집AI 서비스에 시각장애인 맞춤형 콘텐츠를 추가하고 관련 기능도 한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우측부터), 홍순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네이버 최인혁 총괄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증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CJ대한통운-소방청, 국민 안전지킴이 CJ대한통운이 소방청과 손을 잡고 국민 안전 지킴이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소방청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CJ대한통운과 소방청은 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구호 물품 배송을 지원하고 실종자 수색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왼쪽부터)CJ대한통운 차동호 부사장, 소방청 조종목 소방청장, CJ대한통운 신재하 택배기사,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소방청 류대성 소방대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신세계그룹

별마당도서관 1주년... 손열음 무료공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에서 ‘깜짝’ 무료 공연을 펼친다.

신세계그룹은 문화 예술 경영 차원에서 조성한 별마당 도서관의 1주년을 맞이해 깜짝 무료 공연으로 피아니스트 손열음, 외과의사 이국중 교수 등을 초빙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2011년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자,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자 등을 수상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다. /김유진 기자 ujn6326@



별마당 도서관 1주년 기념으로 설치된 ‘드림 트리’. /신세계

오늘의 운세 6월 1일 (음 4월 18일) <http://www.saju4000.com>

48년생 어제는 내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그 사람이 딴 집에 가 있구나. 60년생 비단장수는 비단을 못 입는 법이다. 72년생 오랜 기간 적선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 84년생 뚝방의 행운이 가까이 있으니 나의 주변을 항상 챙겨라.	54년생 관용이 인격을 높이고 휘하를 다스리며 존경을 받는다. 66년생 횡재수가 있거나 슬하에 경사가 있다. 78년생 막다른 곳이라 여겨지던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 말라. 90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서명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49년생 몸도 마음도 지치는 하루이니 외출을 삼가자. 61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오겠으니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자. 73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85년생 목숨이 눈을 멀게 하니 마음을 비우고 멀리 바라보라.	55년생 남의 말은 열음이 가지 않은 법이니 껄넘치 말라. 67년생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면 후폭풍이 염려된다. 79년생 범도 여우가 있어야 위세가 생기는 법이다. 91년생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 있다면 내려놔라. 시간이 해결해 준다.
50년생 여유로운 마음가지미 만사에 행복을 부른다. 62년생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기적도 오는 법이다. 74년생 말로 낸 상처는 말이 치료약이다. 86년생 분실이 우려되니 귀중품 관리에 신경 쓰고 소비도 한 방법이다.	56년생 하늘이 푸른데 비를 걱정은 하지마라. 68년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으로 나타나니 사람을 주의하라. 80년생 항상 먹던 밥에 체하는 법이다. 92년생 주황색 소품이 행운을 부른다 작은 것이라도 착용해 보자.
51년생 죽은 나무는 물을 준다고 살아나지 않으니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63년생 사소한 일도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 유익하다. 75년생 긍정적인 변화와 이동이 있는 날이다. 87년생 정성으로 구하면 안 될 일이 없다.	57년생 기쁨이 많은 날이니 작은 선행이라도 베풀어라. 69년생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81년생 기일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93년생 산에 오르기보다는 내려오기가 더 힘들다.
52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여유를 갖고 기다려라. 64년생 명성과 지위가 높아지는 날이다. 76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해서는 좋은 꼴을 못 본다. 88년생 감정기복이 심한 날이니 매사에 조심, 특히 언행에 주의해라.	58년생 몸도 마음도 평안하니 현재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무릉도원. 70년생 생 각지도 못한 귀인이 주변에 있다. 82년생 어제 남겨둔 일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 94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 할 때이다.
53년생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 때이다. 65년생 남모르게 베푼 선행이 큰 보답을 가져온다. 77년생 명예가 실추되는 날이니 말조심해야 하는 날. 89년생 일회일비 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앞으로 나가라.	59년생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71년생 큰일을 할 때는 사소한 잘못은 문제 삼지 않는 법이다. 83년생 뗏목으로 바다를 건널 수 없다. 무모한 도전은 금물. 95년생 좋은 마음으로 주고 보답을 바라지 마라.

김상회의四季

뒤쳐진다고 걱정 말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게 경쟁이라는 말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입시에 이르기까지 경쟁을 비켜가기는 어렵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경쟁을 하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경쟁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인지 뒤쳐진다는 걸 남에게 밀려나고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을 청한 한 어머니는 아이를 재수시키려는 문제로 고민이 컸다. 아이가 재수를 하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사회생활이 늦어지는 걸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긴 인생에서 1년 정도 늦는다고 큰 일 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는 대가만성은 걱정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다. 일지(日支)에 관대가 있는 사주가 대가만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사주의 일지에 관대(冠帶)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받는다. 사회적 명망도 따르는데 조금 아쉬운 건 마흔이 넘어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며 풀린다는 점이다. 관대 사주는 고집이 세고 남과의 충돌이 잦다는 특징도 있다. 그래서 관대 사주는 마음을 수양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대가만성 사주처럼 늦게야 뭐가 이루어지는 사주는 나쁜 사주일까? 또는 패배하는 사주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저 조금 늦게 가는 것일 뿐이다. 재물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남보다 늦게야 꽃을 피우는 사주가 많다. 학문이나 기술에서도 비슷한 사람들은 슬하에 많다. 그런 사주는 늦기는 하지만 크게 성공하는 게 특징이다. 남들이 조금씩 이루는 것들을 뛰어넘어 큰 성공을 이룬다. 그런 사주가 그러저럭 평균치로 사는 사주보다 더 나은 수 있다. 자기의 사주가 무엇을 해도 남들보다 시기적으로 뒤쳐지는 사주라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필자는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비슷한 인생의 이치를 깨닫곤 한다. 시간이 급해서 다른 차를 추월하면서 빠른 속도로 갈 때가 있다. 그래도 조금은 빨리 왔네 하고 생각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신호등에 걸려서 대기를 하다보면 추월당해 뒤에 있던 차가 바로 옆에 와서 서는 걸 흔히 본다. 결국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1, 2년 정도 늦는다고 인생이 패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나의 사주 따라 제대로 가고 있는가이다. 운세의 기운을 잘 올라타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조금 늦게 가는 것일 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1 3	6 2	
			9 5	4 7	
4 9					
3 6		5 1			
		8 7			5
2 8					3
9 6					
		1 3		5 6	
8 5		6 7		1 9	

		4 6			1
	5 3				4
8		4	3	6 5	
		6	1	5	2
			5	6	
5	7	3		9	
4 6		2	5		3
	3			6 2	
	9			1 4	

스도쿠 정답

6	1	2	7	4	9	5	8	
9	5	8	6	1	2	4	7	
7	4	3	8	5	1	9	6	
1	8	9	7	6	5	8	2	
5	2	9	4	8	7	6	1	
8	6	7	1	5	2	9	4	
1	8	5	2	9	4	6	7	
2	7	4	5	6	8	2	1	
2	9	6	1	7	8	4	5	
1	5	7	1	9	6	8	2	
1	2	9	8	7	6	5	1	
4	6	5	2	1	9	7	3	
9	1	6	7	8	2	5	4	
7	4	1	9	2	5	8	6	
2	8	5	6	1	4	9	7	
5	9	4	1	6	7	2	1	
6	7	2	4	8	1	5	9	
8	1	2	5	9	7	4	6	

문제 제공= **보너스**